"감염병과의 전쟁… 30조 재정 투입"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마스크수급 부족, 원재료 추가확보
"예비비·예산 모두 활용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조에 '감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부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정부 부처의 기민한 대응을 강조했다.

방역 체계 정비와 함께 예방 조치 강화 조치 등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추이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무회의와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코로나 19 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진세가 지속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대구·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요 정부 부처에 마스크 생산 업체가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을 지시하고,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마스크 보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수요만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며 "특히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급히 정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구 현장에 있는 관계로 화상 연결로 참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조명래 환경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연결로 참석했다. 이외에 국무위원은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도 정부서울청사로 온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외한 15개 시·도 지사가 화상 연결로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소총, 전투복, 헬멧 등 군수품

구세대 방식 국방규격 나아질까

장비 호환성 등 사용자 불편 제기

K2C1을 1980년대 레트로 감성으로 재구성한 작품. /문형철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3일 '국방규격 개선사업'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 일선에서는 제식 소총과 다목적 방탄복 등 기본적인 군수품의 국방규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기술적인 요구조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문서다.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군이 사용하는 소총 등 일부 무기체계와 전투복, 전투화, 방탄복, 헬멧 등 전력지원체계(군수품)는 외국군의 개인장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더디게 개선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K2 소총의 경우 구세대 방식의 멜빵고리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대전에 맞는 형상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군의 다목적 방탄복은 방탄복에 각종 장비를 부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몰리(MOLLE·칸칸으로 나눠진 끈)의 간격이 짝수인 국제표준과 달리 홀수(7칸)로 국방규격화 되어 있다. 때문에 장비의 호환성 등 사용자 불편요소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감스럽게도 국군 장병의 기본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군수품의 국방규격 개선은 올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품원이 이날 밝힌 국방규격 개선품은 총 371개 품목이지만 국방규격 개선 품목을 정하는 '규격개선협의체'가 이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규격개선협의체는 방위사업청과 육·해·공군 군수사령부로 구성된다. 때문에 조국수호 일선에 선 장병들이 사용하는 기본적 장비에 대한 규격개선에 방사청과 각군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품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방규격 개선사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대학가 소식

연세대, 대구·경북에 1억 상당 '홍삼진' 기증

연세대학교는 3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연세생활건강 '제중원 홍삼진 프리미엄' 500박스(시가 1억원 상당)를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의과대학의 전신인 제중원(濟衆院)은 '대중을 널리 구한다'는 뜻을 지닌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다. 1885년 알렌이 고종의 지원으로 설립한 광혜원이 이후 개칭된 것으로 조선시대 창궐하는 전염병 치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후원하는 '제중원 홍삼진 프리미엄'은 취약계층에게 전달돼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기약없는 개학에 긴급돌봄·급식지원 등 대책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후속조치
전국연합학력평가 연기 검토 중
학원 휴원권고, 지원 협의키로

서울시교육청 본관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3주 연기 결정에 따라 2일 오후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대책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개학 연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등 결식이 우려되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재원을 부담해 1식 6000원 단가의 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급식 지원 대상은 기존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맞벌이 가구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도 포함된다. 그 외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해 아동급식위원회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급식 지원을 받는다.

지역여건과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9시~15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한다.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학급구성은 최소 인원(10명 내외 권장)으로 분산 배치키로 했다. 공사립 특수학교 29교 중 긴급돌봄을 신청한 13교에서 학생 112명 대상 긴급돌봄이 운영된다.

현재 초등 긴급 돌봄은 576교 1335실이 운영 중이고, 신청인원 1만277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5601명으로 43.8%다.

1학기 적용 프로그램과 온라인 학습 활용 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는 3월 26일 또는 4월 2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학원 위주로 감염증 예방활동과 휴원을 권고하고, 영세 교습소와 학원에는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특히 학원과 교습소 휴원 권고와 지도점검 방안은 휴업기간에 따라 2단계로 정했다.

학교 휴업일이 15일 이내의 경우 학교 개학 연기 기간까지 휴원을 강력 권고하고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휴업일이 16일 이상으로 길어지면 교육부와 학원 임대료나 강사료 등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16일~34일 이내 휴관하는 도서관·평생학습관은 기관별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고 '사서추천도서', '오늘의 책' 등을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교육청이 서울시 지원금 5억원으로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

단국대, 16일 개강… 2주간 원격강의

단국대는 오는 16일 개강한 뒤 2주간 원격 강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국대는 앞서 올해 1학기 개강일을 기존 2일에서 2주 연기했었다.

단국대는 15주 수업을 기준으로 2주간 원격 강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파악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강의는 기존 단국대 원격 강의 시스템 '이러닝 캠퍼스'에서 이뤄지며 교강사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강의를 제작한다. 실험·실습 과목도 원격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추후 오프라인에서 보강한다. /한용수 기자

백점기 교수팀, 英왕립조선학회 최우수논문상

〈부산대〉

부산대학교는 조선·해양공학과 백점기 교수(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장.사진)팀이 영국왕립조선학회 최우수논문상을 통산 여섯 번째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1860년 설립된 영국왕립조선학회의 160년 역사 동안 동일 연구팀에서 여섯 차례 이상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은 백 교수팀이 처음이다. 조선해양분야 학술단체로서도 처음 있는 기록이다. 백 교수팀은 1995년, 2003년, 2008년, 2010년, 2013년, 2020년 해당 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4일(현지시간) 영국왕립조선학회 런던본부 연차총회에서 열린다. /한용수 기자